'뛰느방이 딸에게 헌정하는 와인, 로버트 파커의 극찬'

# 도멘 비르지니 뛰느방

Domaine Virginie Thunevin

| | | | |
|---|---|---|---|
| 지역 | 프랑스 〉 보르도 | | |
| 포도품종 | 메를로 70%<br>까베르네 소비뇽 20%<br>까베르네 프랑 10% | | |
| 알코올 | 14% | 용량 | 750ml |
| 등급 | Vin de France | 시음 적정 온도 | 15-18℃ |
| 테이스팅 노트 | 강렬한 레드 컬러로 플럼, 체리 등과 같은 검은 과일의 향이 풍부하다. 입안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달콤한 과일 향과 함께 오크 숙성을 통해 얻어진 스모키한 훈연의 향, 그리고 신선한 산도와 라운드한 질감의 탄닌을 가진 와인이다. | | |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장 뤽 뛰느방이 와인애호가를 위해 선보이는 '또 하나의 선물'과 같은 와인으로 '혁신적인 와인, 배드 보이'의 대칭점에 서있는 '클래식한 보르도'를 보여준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우 훌륭한 보르도 와인의 정수를 담았다. 라랑드 프롱삭 지역에 위치한 9ha의 재배지에서 수령이 약 40년 정도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지는 와인이다.

**와이너리**

1989년, 뛰느방의 와인메이커 '장 뤽 뛰느방'은 13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다 쌩떼밀리옹 지역 0.6ha의 빈야드를 인수하여 1991 빈티지 샤또 발랑드로를 출시하며 뛰느방 와이너리의 역사를 시작한다.
보르도의 전통적인 양조방식에서 벗어나, 리(Lees)와 함께 숙성하는 부르고뉴 형식의 양조방식을 접목하는 등, 독창적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의 보르도 와인들은 '가라지 와인'으로 불리며 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 또한, '관습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고집스런 괴짜이자 천재'라는 의미로써 장 뤽 뛰느방을'배드보이(Bad Boy)'라 칭하며 그의 열정과 능력을 극찬하게 된다. 또한 와인메이커의 역량이 강조되는'가라지 와인' 카테고리의 선두주자로써, 많은 와이너리들의 컨설턴트도 겸임하고 있는 뛰느방은 현재 그랑크뤼 클라쎄 1등급 B에 선정된'샤또 발랑드로'를 비롯, 대중적 브랜드 '배드 보이', 남프랑스 와인 '뛰느방 깔베' 레인지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